



유아교육에서 포커스그룹 인터뷰 적용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아교육과 이 현 진



공동육아에 관한 논의를 통해 본 유아 교육과 보육에 관한 담론들



한국 유아교육에서의 공동육아

- 공동육아 어린이집
- 유아교육과 공동육아



한국 유아교육에서의 공동육아

- Swadener & colleagues (2000)
 - Childrearing reflects social and cultural assumptions explicitly and implicitly

연구 문제

1. 공동육아 프로그램의 교사, 행정가, 그리고 학부모들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교육의 실제와 교육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2. 일반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행정가, 학부모들이 공동육아 프로그램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와 해석은 내부 참여자들의 해석과 어떻게 다른가?

연구 방법

- 비디오를 매개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Video-cued Focus Group Interview
– Tobin, Wu, & Davidson(1989)
- 데이터 수집
 1. *비디오 촬영:*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일상적인 하루” 촬영 후 30분 분량으로 편집
 2. *촬영/편집 된 비디오 내용의 전형성 확보:*
내부 참여자들에게 촬영, 편집한 비디오 시사 후 의견 듣기
 3. *비디오 시사 후, 참여자들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 방법

- 참여자

- 내부 참여자

공동육아 어린이집 프로그램의 교사, 학부모, 행정가와 전문가들

- 외부 참여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학부모, 행정가와 전문가들

교사 이미지

- 교사의 외양

- 외부 참여자들의 관점:

“기본적으로 아이들 앞에 나타날 때 수업을 하려면 뭔가 준비가 되어 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눈으로 보여지는 선생님들의 복장... 아무리 자연스럽게 보여진다고 해도 동네 아줌마인지, 일하다 온 아줌마인지... 아이들에게 매력성도 주고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 전달도 되어야지...”

교사 이미지

- 교사의 외양

- 내부 참여자들의 관점:

“저는 큰아이 어릴 때 유치원을 보내봤었어요. 거기는 굉장히 교사가 눈에 띄어요. 그게 뭐냐면 교사 주도적으로 생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교사 주도적인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가 눈에 띌 필요가 없는 공간이에요. 아이들도 친구, 혹은 친구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와 같이 하루를 보내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여러 사람 중의 한 명이고 그 여러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그런 거 같아요, 애들의 느낌이. 친구들이 중요하듯이 뭐 선생님도 중요하고 다 똑같아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옷차림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아이들이 일단 별로 없어요. 물론 이쁜 선생님이 있으면 인기는 있어요 (일동 웃음). 뭐 그렇다고 그 선생님을 좋아 하느냐? 안 그래요. 공동육아에서는 같이 흙탕물에서 뒹굴 수 있는 선생님을 가장 좋아해요.”

교사의 이미지

- 교사의 외양
 - 공적 공간에서의 교사 Vs. 사적 공간에서의 어머니
 - 보여지는 존재로서의 교사 Vs. 보는 존재로서의 어머니

교사의 이미지

- 교사의 전문성

- 외부 참여자들의 관점:

“이 화면에서 보는 느낌은 거의가 아이들의 모든게 다 그냥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 선생님이 특별히 뭐 개입하는 거는 별로 중요시 하지는,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치나, 뭐.. 넘어지는 거 뭐 옷이 젖어서 어떻게 됐다거나 이런 거 좀... 어른이 해줄 수 있는 거. 엄마가 해주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무슨 교육처럼 교육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학습적인게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선생님한테 많은 걸 볼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교사의 이미지

교사의 전문성

◦ 외부 참여자들의 관점:

“교사가 멀리서라도... 아까 무슨 다툼이 일어났다거나 하는 상황이면, ‘OO 야, 선생님이 여기 있는데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가 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쓱~ 애들이 다툼이 일어날 때까진 가만히 있다가 다툼이 딱 일어나고 나면 교사가 쓱 가가지고 중재를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 그러기 전에 교사가 개입을 해서 좀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은연중에 왜 말은... 말로 유도를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잘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교사의 이미지

- 교사의 전문성

- 내부 참여자들의 관점:

“어떤 ○○ 유치원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사들이(공동육아교사들) 너무 개입을 한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낮아서 교사가 일일이 여기도 개입하고, 저기도 개입하고 굉장히 바쁘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또 한가지는, 갈등이 중재할 만한 갈등이냐 교사가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카프라 던지고 이랬는데도 울지 않고 어린애도 덤벼거든요. 그 과정 자체를 아이들이 해결하게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갈등을 무조건 어른이 개입해서 ‘너 잘못했어’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게 아니고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의 이미지

- 교사와 어머니의 구분
 - 전문가 Vs. 어머니
- 자격증과 교사 전문성
 - **외부 참여자들:**
교사 자격증 = 교사 전문성
 - **내부 참여자들:**
공동체적이고 지원적인 관계 맺기를 통한
성장의 가능성에 좀 더 초점

준비도

- 학습 준비도와 관련된 광범위한 공포

- 외부 참여자들의 관점:

“근데 이게 학년이 높을수록 어릴 때부터 안 잡은 게 학습효과가 갈수록 너무 높은... 공부를 잘하면 할수록 그리고 사람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일동 웃음). 진짜예요. 내가 큰애에 대해서 ‘아~ 유치원을 그런데를 보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일부러 동네 유치원 보내고 막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제 작은 애는 늦둥이라 여기서(병설 유치원) 보내는데...

엄마들이 그렇게 과연 강심장이 될 수 있을까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만큼)? 이 한국땅에서 키우면서 엄마들이....?”

준비도

- 학습 준비도와 관련된 광범위한 공포
 - 외부 참여자들- 준비하는 기간으로서의 유아기
 - Graue (1993)
 - “ Readiness is locally & socially constructed.”
 - 강창동 (2006) –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학력자본
 - 한지혜 (2004) – 한국 어머니들의 경쟁적인 조기 교육열

준비도

- 학습 준비도와 관련된 광범위한 공포
 - 학습 준비도에 관한 외부 참여자와 내부 참여자 간의 차이점
 - 공동육아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체계적인 지원 네트워크
 - “성장하는 아이들, 성장하는 부모”

일상적인 교육 실제

• 혼합 연령 활동

◦ 외부 참여자들의 관점:

“물론 그 두 아이를 볼 때는 아름다운 광경인데, 큰 아이는 그만큼 아이한테 배려하는 동안에 다른 아이들이 듣고 있는 상호작용을 동생 때문에 방해 받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형 노릇 하느라고. 동생이 보호받아야 할 것도 있지만 형도 형으로서 어떤 학습권이나 보호받아야 할 것도... 개도 어린이니까... 그런데 이제 혼합반일 때는 누군가 한사람 희생을 한다는 거지. 형이 희생을 하던 아니면 동생이 형과 놀면서 지겨움을 참아야 된다는지...”

일상적인 교육 실제

- 혼합 연령 활동

- 내부 참여자들의 관점:

“틈틈이 있는 자유시간에는 오히려 마음껏 어울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외의 시간에는 그런 게 좀 구분은 되어 있는 거죠. 이날 촬영된 것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확 구분은 되지 않지만 분명히 아이들 간에는 어울려 놀 때와 우리끼리 놀 때 도 교사들이 필요해서 의도적으로 어울리게 할 때 이렇게 적절하게 분배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큰 아이가 그 짧은 시간에 따로 떼어져 있을 때 어떤걸 누릴까? 이걸 쉽게 얻어질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동생을 챙기면서 ... 그런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생각에 우리 교사들도 모두 동의를 하는 거 같아요.”

일상적인 교육 실제

- 혼합 연령 활동

- 긍정적 반응들

핵가족 속에서 혼자 또는 소수의 형제들과 자라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연령의 어린이들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우려에서

- 부정적 반응들

개별 유아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부족한 연령에 적합한 활동들, 더 어린 유아들을 보살피는 동안 큰 아이들의 학습이 등한시

일상적인 교육 실제

- 교재 교구

- 내부 참여자들의 관점:

“놀잇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자연적인 놀잇감을 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놀잇감도 플라스틱 같은 것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고...

놀잇감이라고 하면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가장 큰 것이거든요. 애들이 나들이에서 가져오는 떨어진 감, 예쁜 나뭇잎, 강아지풀, 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상상력을 키우고 자기 생각의 폭을 많이 키울 수 있고 놀이방법이 고정적인 놀잇감들은 지양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구비하는데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놀잇감은 자연에서 얻어지고 그것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더 넓혀주는 놀잇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상적인 교육 실제

- 안전 문제

- 내부 참여자들의 관점:

“그 부분만 보면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데 실제로 생활을 해 보면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나들이를 다니거나 산길을 다니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기본 철학도 있잖아요. 아이들을 너무 안전한 공간에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아이들이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부러 그런 환경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환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을 언제나...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그곳은 절대로 못가는 공간이다’ 라고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아이들은 그곳이 일반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편안한 그런 공간이 아니고,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그런 것은 있지만, 자기네들의 흥미와 이런 것들을 끄는 재미있는 공간...”

일상적인 교육 실제

- 안전 문제

- 내부 참여자들

- 위험에 대처하는 어린이들의 능력에 더 많은 신뢰
 - “적절하게 위험한”/ “적절함”의 정도
 - “Dignity of Risk” (Swadener, 2008, personal communication)

- 외부 참여자들

- 상처입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로서의 유아
 - “Compulsory visibility” (Foucault, 1977)
 - 유아와 교사 모두에게 적용

결론

- Bakhtin의 관점

- “The meaning of an utterance is always contextual”

- 개별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과 표현들은 그들이 속한 더 큰 그룹의 반영

- “The content of psychic life is thoroughly ideological”

- 외부참여자들과 내부참여자들 간의 다른 목소리들
→ 두 그룹이 속해 있는 더 큰 사회인 한국 사회의 긴장(tensions)의 표현

결론

- 다른 유형의 유아교육/보육 기관에 관한 논의를 통한 대화의 시작
 - 유아기와 유아교육에 관한 논의의 장을 확장시키고, 다른 관점들을 통해 당연시 하던 것들에 대한 재고
- 유아교육에 관한 유아들의 목소리
 - 성인들의 교육적 결정에 대해 유아들이 어떻게 느끼고 얘기하는가에 대한 연구 필요